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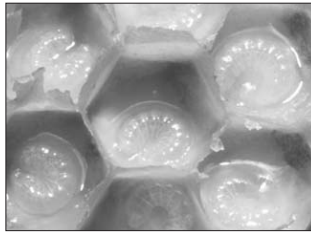
로열젤리 화장품, 기능성 인정 받고 상품화

농진청,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록... 인체 적용 시험서 피부 평균 거칠기 15.5% · 주름 깊이 최대 21% 줄어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특허 출원한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 조성물로 만든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를 거쳐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에 등록됐다.

최근 세계 화장품 시장은 연 6% 이상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히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로 자연 유래 성분(클린 뷰티)이나 치료 목적의 화장품(코스메슈티컬) 등이 새로이 떠오르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로열젤리의 특이성분 구명 및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제로 지난해 로열젤리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하고, 주름 관련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켜 주름 형성을 억제하며 피부 보습에 효과적이라는



로열젤리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또한, 로열젤리 함유 세럼을 눈가에 발랐을 때 피부 평균 거칠기는 15.5%, 주름 깊이는 최대 21%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로열젤리 함유 화

장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 연구 결과를 정리해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지난 5월 23일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을 피부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에 등록했다.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 원료의 조성물은 산업체에 기술 이전돼 제품 생산과 상용화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시장에 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은 고품질 로열젤리를 생산하기 위해 꿀벌 품종을 육성해 왔으며, 2019년 '젤리킹'을 품종 등록하고 농가에 보급하고자 국가보급체계를 구축 중이다. 2026년이면 보급종을 증식하고 농가에 보급해 로열젤리 생

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열젤리를 기능성화장품 생산에 이용하려면 양봉농가와 생산계약을 맺어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로열젤리를 생산할 때는 다른 양봉산물과 달리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양봉농가에서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로열젤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로열젤리 대량 생산 시스템'도 확립했다.

농촌진흥청은 로열젤리 함유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 등록은 양봉농가의 소득 다각화와 양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성분의 화장품 출시로 소비자 선택 폭이 넓어지고, 곤충 활용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기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을지연습 공사 대표 훈련 실시

농어촌공 - 유관기관, 전시 대비 태세 확립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이정문 본부장)는 21일 오후 남원시 금동저수지에서 2024년 을지연습 공사 대표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전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실제 훈련으로, 공단 이병호 사장, 김종훈 경제부지사, 민선식 남원부시장, 김영태 남원시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양희 남원지사장의 훈련브리핑으로 시작을 알렸다.

수리시설 응급복구훈련은 적 드론 테러공격으로 인한 금동저수지 제당유실 및 사통실 파괴에 대응하여 주민 대피, 화재진압, 2연 비상수문 개방, 이동식 사이언을 설치하는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하루 지역주민을 대피시키고

저수지 주변을 통제했으며, 복구작업 중 발생한 부상을 구급차로 긴급후송하고 굴삭기를 투입·안전테이프 설치해서 응급복구를 재개하고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실전같은 가상훈련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날 훈련으로 남원시, 남원소방서, 육군 7733부대 3대대, 남원경찰서 등 관내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도 점검했다고 한다.

이병호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으로부터 농어업인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내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 강화와 실제 훈련 고도화에 최선을 노력할 하겠다"고 말했다.



“수해 상처 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전건협 전북도회, 익산시에 수해 복구 성금 1000만원 전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를 지난 20일 방문해 정현을 시장을 만나 수해복구 및 구호를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임근홍 회장은 "최근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수해복구 성금

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자치도 320여 전문건설업체도 한마음 한 뜻으로 익산시민들이 수해의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의 생필품 및 구호품 긴급 지원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전개공, '제1차 CS소통회' 개최

고객 만족도 향상 목표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21일 공사 사옥에서 고객 만족도 향상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목표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자 '2024년 제1차 CS소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공사가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

탕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임대주택 입주민 등 공사 고객과 담당부서 직원이 참석하여 자유로운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고객만족경영의 일환으로 최근 실시된 △외부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 △고객서비스 개선방안 △사전정보공개 개선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활발히 교환되었다.

전주농협 김태영 신용상임이사 · 나병훈 경제상임이사 취임식 개최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은 지난 20일 본점 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회의를 실시해 제9대 김태영 신용상임이사와 제5대 나병훈 경제상임이사의 취임 인사말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해, 새로 임명된 상임이사 분들에게부터 전주농협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인규 조합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행사는 축사, 취임사, 꽃다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영 신용상임이사는 지난 1981년 이서농협에 입사한 이후에, 2003년 전주농협으로 전입해 지점장으로 근무했고, 지난 2018년에 북전주농협에서 상임이사로 정년퇴직했다.

35년간의 농협인으로서는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2024년 7월30일 제1차 임시총회에서 제9대 신용상임이사로 선출됐다.

나병훈 경제상임이사는 지난 2012년 농협은행에 입사한 이후에, 2016년 전주농협 제1대 경제상임이사로



전주농협은 지난 20일 본점 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회의를 실시해 제9대 김태영 신용상임이사와 제5대 나병훈 경제상임이사의 취임 인사말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해, 새로 임명된 상임이사 분들에게부터 전주농협이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년 재직후, 지난 2021년까지 미래농업전략연구원 전략본부장을 역임했다.

도시농협으로서 취약한 경제사업 기반 역량을 견고하게 개선 구축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여 2024년 7

월30일 제1차 임시총회에서 제5대 경제상임이사로 선출됐다. 임기는 각각 2026년 8월19일까지 2년간이다.

김태영 신용상임이사는 취임사를 통해 "전주농협의 발전과 함께한 여러분들처럼 신용상임이사로서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시작과 끝이 좋은 신용상임이사가 되도록 많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오며 조직 내에서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 전주농협이 발전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나병훈 경제상임이사는 "과부침주(破釜沈舟)의 정신으로 필사의 각오로 전주농협의 경제사업수익이 전체의 30~40%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적극적인 반영해 발전적인 전주농협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다"고 취임인사를 통해 포부를 밝혔다.

전북은행, 2024 을지연습 '전산망 피해복구(DR)훈련' 실시

금융전산망 안정성 확보 중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2024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금융전산망 피해복구(Disaster Recovery)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피해복구 훈련은 전쟁 발발 전·후, 불순분자에 의한 해킹이 발생하거나 정전으로 인한 전산망 장애 발생 등의 상황을 가정하여 금융전산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특히, 재해 복구센터의 정상 가동을

위한 제반 절차 숙지 및 실제적인 상황을 부여하여 복구훈련을 진행하였다. 이번 훈련은 위기 상황 대응반의 역할, 지휘의 적정성, 세부 단계별 대응 전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은행 최우석 IT 기획부장은 "이번 전산망 피해복구 훈련을 통해 재해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히 금융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전북은행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철저한 보안 관리로 고객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